

##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우수자 전형 논술고사 기출문제 (B형) 2교시

[문항 1] 조선 후기 국문소설인 **가**에 형상화된 ‘평국’의 문학적 가치와 ‘계월’의 시대적 한계를, **나**와 **다**를 참고하여 논술하시오. (700 ± 50자)

**가**

차설, 어의가 평국을 진맥하다가 괴이한 일이 있어 수상하다고 아뢰니 천자가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어의가 땅에 엎드려 다시 아뢰었다.

“평국의 맥을 보니 남자의 맥이 아니라 이상합니다.”

천자가 그 말을 듣자 다시 말하였다.

“평국이 여자라면 어찌 적진에 나가 십만 대병을 물리치고 왔으리오? 그러나 평국의 얼굴이 꽃처럼 붉고 신체가 연약해 보여 의심할 만하니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때에 평국이 병세가 점점 나으니, 어의가 다녀갔음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어의가 나의 맥을 보았으니 분명 나의 정체가 탄로 났을 것이다. 이제는 어쩔 수 없게 되었으니 다시 여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규중에 몸을 숨기어 세월을 보낼이 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곧 남자 옷을 벗고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부모에게 갔다. 평국이 위공 부부 앞에 앉아 흐느끼며 두 볼에 눈물이 떨어지니 부모가 또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였다. 계월이 슬픔에 겨워 우는 모습은 가을날 연꽃이 가는 비에 젖은 듯하고, 하늘의 초승달이 깊은 구름에 잠긴 듯하며, 요요한 태도는 당대의 제일이었다. 이날 밤 계월이 천자에게 상소문을 올리니 천자가 받아 보았다.

… (중략) …

하루는 천자가 평국의 아버지인 위공을 궁궐로 불러들여 말하였다.

“짐이 원수의 상소를 본 뒤로 고민이 많은지라. 평국이 규중에서 홀로 늙으면 나중에라도 그대의 혼백이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 또한 짐이 평국의 혼인을 직접 중매를 서고 싶은데, 경의 마음이 어떠하뇨?”

위공이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신의 뜻도 그러하오니 소신이 나가 의논하여 보겠습니다만, 평국의 배필로 누구를 삼고자 하시나이까?”

천자가 일렀다.

“평국과 함께 공부하던 보국을 맺어 주고자 하는데, 경의 마음이 어떠하뇨?”

“신의 뜻도 그러하오니 폐하의 뜻이 마땅하옵니다. 평국이 물에 빠져 죽을 목숨이었지만 여공의 덕택으로 살았습니다. 여공은 평국을 친자식같이 길러 평국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별하였던 저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국은 평국과 더불어 공부하고 같은 날에 급제하여 폐하의 성덕으로 벼슬을 받아 만리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였습니다. 더구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는 이제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사오니 천생연분인가 하나이다.”

위공이 궐에서 돌아와 계월을 불러 앉히고 천자의 말을 낱낱이 전하니 계월이 말하였다.

“소녀의 소원은 평생 동안 부모님 슬하에서 지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도 죽어 다시 남자가 되어 공자와 맹자의 행실을 배워 다시 이름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근본이 탄로 났고, 천자의 명령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 슬하에 다른 자식이 없어 조상의 제사 또한 모실 수 없습니다. 자식이 되어 부모의 말씀을 어찌 거역하오며, 천자의 명령 또한 어찌 거역하오리까? 천자의 말씀을 좇아 보국을 섬겨 여공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자 하오니, 아버님은 천자에게 이런 사연을 아뢰어 주십시오.”

말을 마치자 계월의 눈에서 눈물이 그렇거리다가 툭 떨어졌다. 계월은 남자 못 됨을 한탄하였다.

<홍계월전>, 『고등학교 문학』

**나**

‘여성다운’ 여자의 본질적 특질로 불리는 수동성은 유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수동성을 생물학적 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제로 그것은 교육자들이나 사회가 그녀에게 강요하는 운명이다. … (중략) … 여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기의 자주적 존재와 ‘타자 존재’ 사이에 충돌이 있다. 그녀는 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자신을 객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 결과 자율성이 부정된다. 그녀는 마치 살아 있는 인형처럼 다뤄지고 자유를 금지당한다. 이리하여 일종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세계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 역시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그만큼 주체로서의 자기를 확립할 용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격려를 받는다면, 여자아이는 남자아子和 같은 활력과 탐구심, 진취적인 기상과 대담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보부아르, <제2의 성>, 『고등학교 고전』

**다**

성 불평등 현상의 발생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에 의한 성 역할의 사회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의 생물학적 성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지만, 성 역할 또는 성 정체성은 성장하면서 형성된다. 예컨대, 사회화 과정을 살펴보면 여아에게는 여성의 역할에 부여된 사회적 기대를, 남아에게는 남성의 역할에 부여된 사회적 기대를 각각 학습시킨다. 결국, 여성은 어려서부터 여성다움을, 남성은 남성다움을 유지하도록 요구받는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항 2] 새로운 정책 결정 형태로서 **가**의 ‘숙의 민주주의’의 출현 배경을 **나**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이 제도의 특징을 **다**와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700 ± 50자)

**가**

14일 오전 충남 천안의 ○○○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 참여단 종합토론회.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이 이날 1시간 30분 동안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답변을 했다. 단상 양쪽으로 ‘경청’, ‘숙의’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13일부터 이틀간 합숙으로 진행됐다. 원전 건설 중단이라는 첨예한 문제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시민들이 숙의하고 표결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숙의 및 표결 결과를 고려하여 정부는 관련 정책을 결정한다고 한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토론과 심의 과정을 중시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첫 실험인 것이다.

<○○일보>, 2017년 10월 15일

**나**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가 대표성을 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정치 활동을 하는 민주주의이다. 모든 시민이 한 장소에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래서 현대 국가는 대체로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물들의 정치적 대표성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익집단의 활동 등이 대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다**

여론 조사는 사실 판단의 기초 자료로, 정부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많이 활용된다.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론 조사의 중요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론 조사는 조사 모집단의 일부를 선택한 후 면접원이 응답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이때 면접원은 준비된 몇 개의 질문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응답자는 찬성 혹은 반대 등 간단한 형태의 대답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통계적 절차를 거쳐 여론 파악의 도구가 된다.

『고등학교 사회』